

5. 종합관리대책

산업폐기물로 인한 문제는 발생,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분 등 각 단계마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의 개념이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행정, 기술, 재정이 조화되어진 종합관리대책의 수립과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의 방향을 고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특정유해폐기물 관리 감독 강화
- (2) 철저한 책임과 의무수행 풍토 조성
- (3) 자원화 가능 산업폐기물의 상호이용 촉구
- (4) 산업폐기물 처리업소의 대형화 유도
- (5) 유해폐기물의 수입 제한 강화
- (6) 산업폐기물 전용매립시설의 적극 확보
- (7)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파악
- (8)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활성화
- (9) 산업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의 개선
- (10) 산업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6. 결 론

산업폐기물은 유독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확하고도 엄밀한 정의와 규제가 뒤따라야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미약하여 처리기준의 설정 등에도 유해성이 별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유해성 평가,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기술, 소각기술, 측정감시기술, 토양오염과 침출수 처리, 주민여론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공학적 관리기술 등 정부, 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의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제 고도로 산업화되어가는 우리나라도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야만 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방침도 강화되어야 하며,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도 가속화되어 환경보전과 나아가 환경기술의 수출화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해의환경

체르노빌지역 생태계 변화돼 방사능 유출사고뒤 오크나무잎 무한정자라

소련당국은 지난 86년 4월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북쪽 체르노빌 핵발전소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생태계에 대한 방사능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지대로 지정하는 한편, 당시 사고 피해가 심각했던 3개지역 일대에 특별 피난처를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현지 전문가들의 조사를 인용, 당시 방사능의 낙진이 심했던 이 지역의 소나무 침엽은 사고발생후 10배나 무거워졌고 오크나무의 잎은 무한정 자라고 있으며 아카시아의 잎도 어린 잎이 손바닥 크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특히 체르노빌발전소의 반경 6~7 km 이내 지역에 위치한 소나무 및 상록 교목나무는 앞으로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 지역에는 당시 사고로 방사능이 3백~4백 50 래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방사능은 이 지역 동물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어 다람쥐 등에 이상 유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우와 토끼 그리고 돼지 등도 높은 수준의 환경오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 (서울신문에서)